

김지철 충남 교육감, 취임 2주년 “100년을 생각하며 사람을 기르겠습니다”



현장 점검 중인 김지철 교육감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은 취임 2주년 언론브리핑에서 100년의 미래 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핵심정책을 발표했다.

김 교육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역설은 감염병을 통해 학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며 “학교는 왜 존재해야 하는지, 공교육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미래 교육은 어떤 모습인지 등 학교 교육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는 기회”라고 말했다. 또 “학교 혁신은 미래 교육의 자화상, 혁신학교는 공교육의 미래”라면서 “혁신 2기 충남교육은 일상적인 코로나 시대를 지혜롭게 헤쳐가며, 일찍 다가온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교육감이 밝힌 충남 교육의 향후 핵심 정책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대응 학교지원단 신설

학교지원단에 원격교육지원팀, 감염병 건강지원팀, 심리방역지원팀으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학교지원단을 만들 예정이다.

원격교육 지원팀을 운영해 교과별 단원별 특성에 맞게 콘텐츠 제공형, 과제 수행형, 실시간 쌍방향 등 다양한 원격수업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감염병 건강지원팀도 운영한다. 교육청은 제도적인 보완과 시설 환경적 보완을 위해 감염병 확산 방지 관련 제 규정을 정비하고, 즉각적인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정보 전달 및 보고·취합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한다.

심리방역지원팀도 운영한다. 코로나19 대비 심리적 방역 지원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용 동영상 제작한다. 취약계층 심리 위축

학생들의 ‘마음 돌봄’을 위한 상담 지원 포털을 운영하고, 생필품 지원 등 복지도 강화할 계획이다.

직업계 고등학교 재구조화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신산업 분야 직업 교육을 통해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3년간(2020~2022년) 직업계고 재구조화를 위해 344억원을 지속해서 지원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개별화 교육

충남교육은 AI 도입을 통해 맞춤형 개별화 교육을 실현한다. AI 교육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보교육 지원단’을 운영하고,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충남Dream AI닷컴’을 통해 인공지능, 데이터 과학, 기계학습 등 관련 교육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환경교육 강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생태 환경 교육을 강화한다. 지구를 지키는 에너지 학교와 ‘충남 초록 에너지’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1교 1환경사랑 학생동아리를 조직할 예정이다.

다시 민주시민 교육을 강조

K-방역이 세계적 표준으로 자리 잡은 것은 학교에서 배운 ‘교복 입은 시민’이라는 가치가 빛어낸 연대와 협동, 공존과 배려라는 민주 시민 교육의 성과다. ●

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

학교를 바꾸는 힘!

함께 공부하는 선생님을 응원합니다

충남교육청 선생님들은 학교 안과 밖에서 함께 공부하며 전문성을 키우고 학생중심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모든 학교는 주 1~2회 수업을 함께 연구하고 실천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는 선생님들이 383개의 학습공동체를 조직하여 교육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http://www.cne.go.kr>